



제주감귤, 국산 품종 시대 열릴까

농진청, 감귤연구단 출범해 품종 개발·보급키로 국산 품종 보급률 3%... 2029년까지 20%로 확대

제주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힘이 보태진다.

농촌진흥청은 경쟁력을 갖춘 감귤 품종 개발 등을 통한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해 감귤연구단을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감귤연구단 출범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지난해 3월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감귤특화사업단 구성을 통한 품종 보급사업 추진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까지 개발된 국산 감귤 품종은 23종에 달했으나 선호도에서 외국 품종에 밀려 보급률이 3%에도 못 미치고 있다.

농진청은 감귤연구단 출범을 계기로 유관 기관과 함께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해 국산 품종 보급률을 2029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품종 개발 분야는 신품종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일반 품종을 대체할 고품질 10품종을 개발하고, 품종 육성 효율을 향상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품종 보급 분야는 유망 품종의 재배방법을 확립하고 생산 농가를 조직화하며, 품종 갱신 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포 생산·보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2020~2024년) 사업에 52억원, 2단계(2025~2029년) 사업에 100억원 등 10년간 총 사업비 152억원을 투입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재배 품종의 다양화와 수확시기 분산, 유통 차별화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흉수 출하, 가격 하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halla.com

신산업 키우고 사회문제도 푼다... 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확정

3대 전략·31개 과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지난 4월 심의하고 3대 전략 31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능화 기술 주도의 신산업 창출, 지속 가능한 산업 인프라 조성, 도시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4차 혁명을 이끌고 갈 3대 전략으로 선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1932억을 투입해 31개 추진 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제주미래 경쟁력 강화로 제주는 기존 전략 산업에 ICT 융·복합산업을 접목해 바이오·화학품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제주 전략 산업을 육성·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연결성 강화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을 위한 플랫폼·자본·인력 등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지속성 확보를 위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강화와 사회

회적 가치 실현의 공감 확보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형 창업지원 정책을 통한 새로운 산업군 육성을 통해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을 통해 새로운 분야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제주지역 산업과의 차별화 등 산업 다각화를 모색 중이다.

새로운 기회 창출과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불특체인 산업과 드론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새로운 시장 발굴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과제 공모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중앙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스마트팜 활용 교육생 모집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12일부터 도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활용 기초과정’ 교육생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팜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농작물 재배를 자동화하고 농업데이터를 수집·저장해 농작물 생육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농업 기술이다.

교육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되며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760-782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윤기자

다금바리·홍해삼 등 40만마리 바다에

도, 특산품종 종자 방류 등 어업인 소득 향상 사업 추진

제주도내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특산 수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해 다금바리 등 특산 품종을 중심으로 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어선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제주 대표 특산어종인 자바리(다금바리), 불바리, 능성어(구문쟁이) 10만 마

리 종자를 생산해 올해 하반기 제주 지역 주변 어장에 방류할 계획이다.

이들 어종의 자원조성 사업 타당성 규명을 위해 표지방류 및 친자 확인에 의한 방류효과 분석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을어장 해녀어업 소득 향상을 위해 제주특산 브랜드화가 가능한 오분자기와 홍해삼 인공종자 30만 마리를 마을어장에 방류키로 했다.

특히 잠수어업인 고령화에 맞춰 낮은 수심에 서식하는 오분자기의 자원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뿌연 먼지에 뒤덮인 제주 시내. 미세먼지농도가 짙어져 나뭇잎을 보인 11일 제주시 애초로에서 바라본 제주 시내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둘러싸여 있다.

“인력 최대한 투입해 이태원 방문자 파악을”

정세균 총리, 지자체에 당부... 방문자는 무료검사 수도권 이어 부산·충남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에서는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방문자들을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 사항 및 조치계획, 등교수업 대비 학교 방역관리 상황, 마스크 수급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지역감염 확산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차단하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지자체에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 최대한의 방문자들을 파악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비슷한 시기에 이태원을 방문하셨던 분들께 다시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망설이면 우리의 일상시계는 한달이 멈출지도 모른다”며 “협조가 늦어질 경우 정부로서는 전체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일대 유흥시설 방문 사실을 알리면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이라도 당분간은 유흥시설 뿐 아니라 감염에 취약한 실내밀집시설의 출입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8일 저녁 8시부터 한 달간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각 지자체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동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부산과 충남, 대구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부미현기자

“정치용 이슈 풀이 안돼 元 지사 방역 조치부터”

민주당 도의원 성명서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 일동은 11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중앙정치용 이슈풀이는 그만두고 선제적 방역 조치와 민생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관련 정부 대응을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인간의 안일함과 자만이 우리의 삶과 일상을 파괴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제주가 가지고 있는 총력을 방역과 감염 확산 방지에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성공에 대한 자화

자찬으로 인한 것’으로 호도하면서 국민적 어려움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는 더 이상 중앙정치를 위한 이슈풀이를 그만두고, 제주에서의 2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를 강구하는데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일상이 무너져 내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책강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리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와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요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濟州) 리모델링

辛一(辛一) 祚(祚)

누수방지 가시식, 청진가시식 수도매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010.7599.6234